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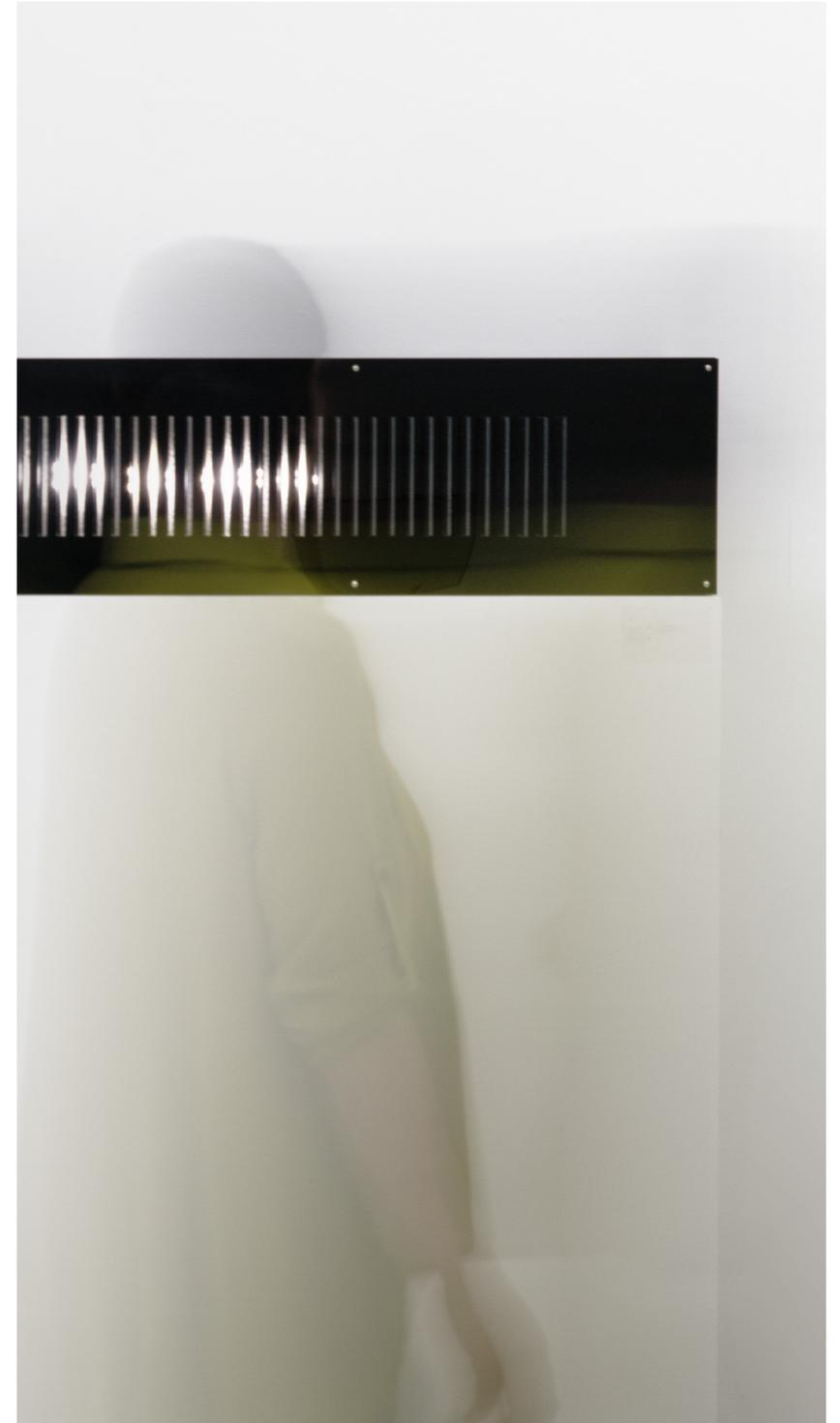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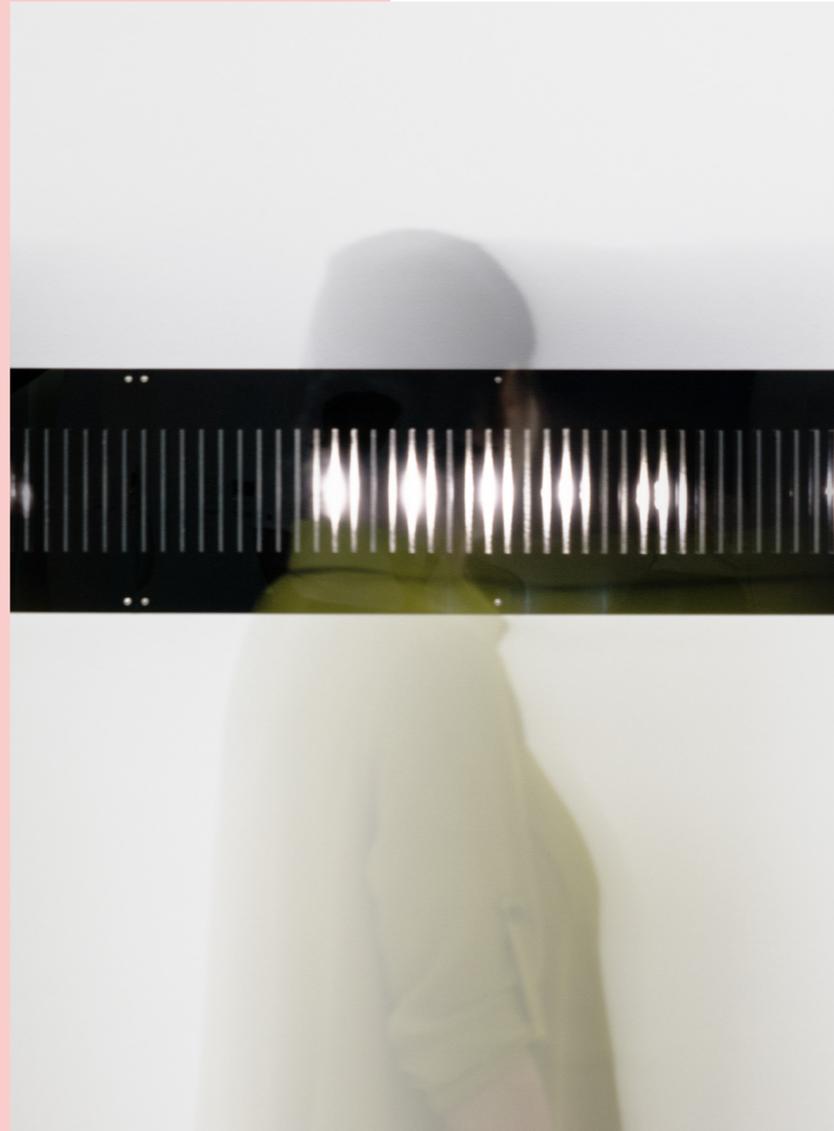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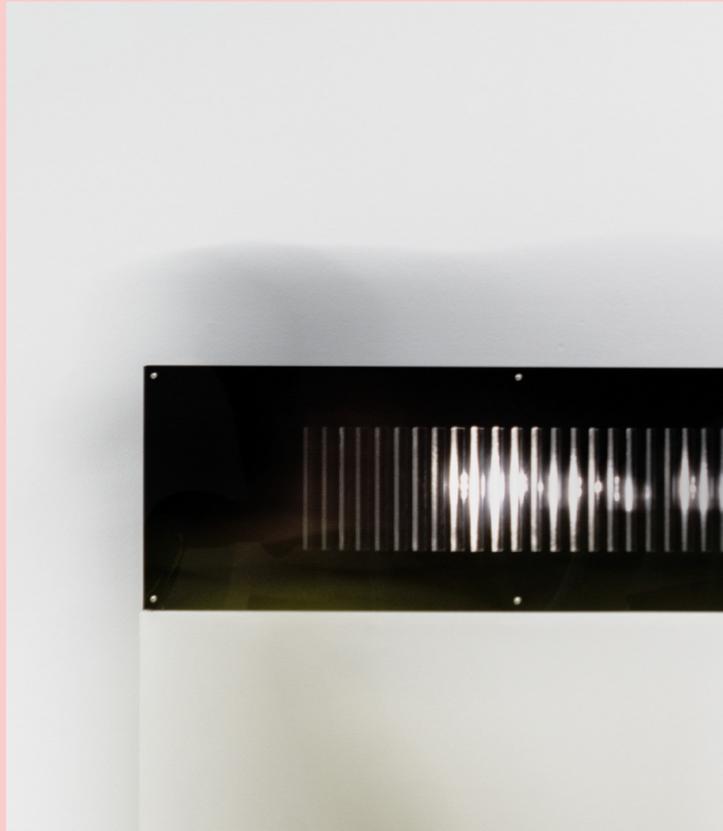
# ARTLAB DAEJEON

OI;

이응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룸  
2019. 06. 11—06. 30

이지혜 Lee Ji Hye

#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조명(light)하다



전시를 통해 빛을 느끼고,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그 빛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기를...

나의 작품은 종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기도와 묵상으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내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의 실재를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드러내며, 몰아낸다. 나에게 빛은 믿음이고, 소망이며, 사랑이고 생명이다.  
나는 빛을 통해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객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빛나는 삶, 빛나는 희망, 빛나는 천국...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를 빛을 매개로 하여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님을 이야기한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또렷해진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  
빛은 더 환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출 것이다. 작품은 어둠이라는 공허한  
공간 혹은 인간의 마음을 순수한 빛으로 밝히고 채운다.

어두운 공간을 채우는 빛의 이야기를 가만히, 잠잠히 들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그 빛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작가노트 중에서

# 보이지 않는 것을 조명하다

이선영 미술평론가

이지혜는 빛을 매개로 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조명하고자 한다. 작가의 첫 개인전이기도 한 작품들에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주제가 담겨 있으리라 믿는다. 이 전시에서 빛은 중성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띄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다섯개의 작품들을 존재의 연쇄로 만든다. 존재의 연쇄 망은 근대가 텅 비워 놓은 공허한 공간을 다시금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연결하는 행위 또한 종교적 충동의 산물이다. 이지혜의 많은 작품에 작동되는 상호작용성은 연결짓는 행위를 관객에게로 확장한다. 작품들은 관객이 관심을 보이면 대답하듯 반응하는데, 이때 빛이 주요한 매개가 된다. 작가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드러내며 항상 어둠을 이긴다. 나에게 빛은 믿음이고 소망이며 사랑이고 생명이다. 나는 빛을 통해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작가노트) 이야기한다.

종교적 영감으로 충만한 작품들은 통상적인 미디어 아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희성과 화려함 대신에, 간결하고 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기도 및 묵상 같은 깊은 몰입적 행위는 현대 문명의 수다스러움을 견어내고 본질과 마주하게 할 것이다. 기도와 묵상을 닮은 간결하고 정적인 작품들은 재미에 가려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빛은 오감 중 가장 중요한 감각인 시각의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조형예술가는 시각이라는 감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각의 역설을 잘 인식할 수 있다. 스펙타클의 시대, 수많은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보이는 것을 그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동어반복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를 회의한다. 즉 동어반복에 기초하는 형식주의 논리를 거부한다.

이지혜의 작품에는 어떤 대상을 깊이 조명하는 주체가 있다. 이러한 주체는 종교적이다. 기독교에서 신의 가장 큰 선물은 주체라고 말해진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말해졌던 시대에 인간의 위상 또한 의심되었으며, 미디어가 더욱 발달하고 있는 현재, 신 이후, 인간 이후(post-human)에 대한 사고 또한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전시에서 다루어지는 빛은 예술의 기원인 종교, 종교보다 더 오래된 자연에 널리 걸쳐 있는 것이다. 마침 전시가 열리는 계절은 신록으로 푸르러 빛이 생명의 근원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한다. 빛을 머금을 수 있는 자연의 화학 공장인 엽록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음으로서, 빛과 다른 생명체들의 매개고리가 된다. 우주에서 대형 운석이 떨어져 그것이 일으킨 먼지 폭풍이 태양을 가려 생겨난 긴 빙하기로 공룡이 멸망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빛을 생명과 동일시하는 사고는 큰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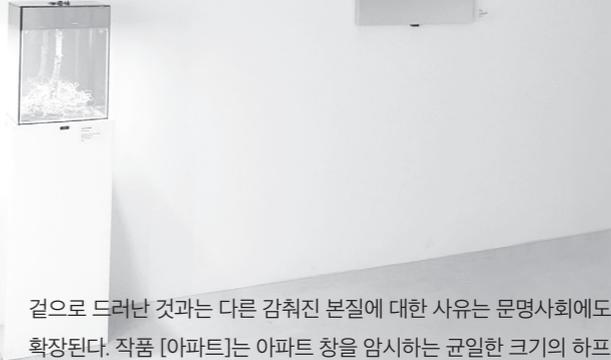
한 생명체가 죽으면 먼저 눈의 빛이 사라진다. 죽음은 기(氣)가 빠져나간 물질의 상태를 말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태양도 일찍이 신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신학적 사고에서 빛과 어둠을 가르는 행위는 창조자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변하는 상징이다. 전기의 발명으로 빛이 없는 암흑을 정복했을 때도 빛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삶의 경외감을 상징하는 미디어로 거듭난다. 이지혜가 전공한 미디어 아트 분야의 작품들은 보통 전기로 구동된다. 통상적인 미디어 작품에는 폭죽놀이와도 같은 화려함이 깔려있다. 많은 자본과 기술이 집중하는 흥행몰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않은 터라, 미디어 아트는 대개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취급을 받는다. 회화나 조각은 그러한 화려한 스펙터클과의 경쟁에서 면제(또는 소외)받는 경향이 있지만, 비슷한 도구를 쓰는 미디어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가속도를 붙여가는 기술의 진보에 맞춰 시시각각 업데이트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물론 예술성과 대중성이 잘 결합 된 훌륭한 예도 적지 않지만, 개별 작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작은 기회도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이 예술의 훌륭한 전략이다.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는 이지혜의 작품들은 대부분 마주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술을 활용한 작품이지만 인간적 차원은 유지된다. 작품 [The roots]는 마치 거울처럼 보는 이를 되비쳐 준다. 그러나 관객이 이 수수께끼같은 대상에 관심을 표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거울은 유리가 된다. 유리 안에는 복잡한 굴곡을 가진 나무뿌리가 모터에 의해 돌아간다. 평소에는 거울이고 밝아지면 유리로 바뀌는 하프 미러는 극적 변화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적 관심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다. 감춰져 있는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은 주체의 관심이다. 거울 뒤에 감춰졌다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뿌리는 인생을 비롯한 굴곡진 삶을 반영한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겨난 기이한 형태들은 강한 실재감을 준다. 자연의 산물인 인간은 결코 자연이라는 실재를 부정할 수 없다. 거울 혹은 유리 안의 대상은 단순한 주관적 환상이 아니라, 은폐된 객관성이 드러난 것이다. 천국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차원을 다루는 형이상학적 사고는 객관적 실재를 가정한다. 반면 정보화 사회를 물질 토대로 삼는 포스트 모던 문화는 모든 것을 가상으로 취급하곤 한다. 작품 [초승달]은 캔버스에 그려진 끊어질 듯 가느다란 초승달이지만, 다가서면 둥근 빛이 새어 나와 보름달처럼 환하게 변한다. 그것은 감춰져 있지만 실재하는 것을 말한다. 원을 품고 있는 초승달은 연약함과 동시에 충만과 소망을 암시한다. 물론 보름달은 그믐달이 되고 다시 초승달이 되겠지만, 그 주기적인 변신은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희망을 내포한다. 작가가 선택한 식물과 달은 질베르 뒤랑이 의미하는 '인류의 상상계'에서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자연물이다.

걸로 드러난 것과는 다른 감춰진 본질에 대한 사유는 문명사회에도 확장된다. 작품 [아파트]는 아파트 창을 암시하는 균일한 크기의 하프 미러로 된 사각형들에 다양한 빛의 상태를 연출함으로써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비춘다. 작가는 인간을 등장시킴 없이 인간적 삶을 은유한다. 흐릿한 창은 있어도 완전히 꺼져있는 창은 없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중심]은 '우리 모두의 중심에 있는 빛'을 흔들림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한다. 공중에 매달린 아크릴 막대를 통해 전달되는 빛은 초점이 맞을 때 중심에서 가장 환하게 빛난다. 작품 [동행]은 긴 삶의 여정을 은유하는 수많은 아크릴 조각들로 이루어져 그 앞을 지나는 관객의 발걸음마다 빛이 따라오는 듯이 연출한 작품이다. 관객의 위치를 인식하는 카메라에 의해 켜진 조명은 여로에 정렬한 아크릴 조각들을 통해 새어 나오게 된다. 동행이라는 제목은 짧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여기에서 빛은 하나의 기원을 가지기 보다는 편재한다. 그것은 '빛이 나와 함께 하는 경험'을 전달한다.

막스 아머는 [공간개념-물리학에 나타난 공간이론의 역사]에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의 신이 너와 함께 있다'고 적혀있는 [탈무드]를 인용하며 신의 편재(omnipresence)를 말한다. 신학적 사고에서 공간과 신은 연결되며 공간을 채우는 것은 빛이 된다. 공간 이론의 역사는 공간과 빛을 같게 여긴 전통을 소개한다. 공간을 빛과 같게 여기는 전통에서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것에 침투하는 힘이고 존재의 위계 질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간주된다. 막스 아머에 의하면 선사시대로부터 빛은 초자연적 힘들을 상징했는데, 신의 모든 형상을 금지하는 성경조차도 빛 원소를 신이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매체로 여전히 사용한다고 한다. [신약성서]에서 신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다. 이지혜의 작품은 빛을 신으로 삼는 전통 또는 빛을 형이상학적으로 신에게 이르는 길로 간주하는 전통과 관련된다. 이러한 전통은 전기의 시대에도 이어진다. 이지혜의 작품은 미디어 아트라는 현대적 수단으로 오래된 전통과 접속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9)

나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의 실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 분은 빛으로 묘사되며 보이지 않아 혼자인 것 같아도 걸음걸음 내 길을 비추시고 밝히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치고 힘들 때든, 외롭거나 두려울 때든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된다.

작품은 긴 삶의 여정을 은유하는 수많은 아크릴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삶의 긴 여정과 인생의 각 층으로, 걸음으로 묘사된 작품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옆에서 비추는 빛을 통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외로운 인간에게 삶의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동행의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카메라에 의해 인식된 관객의 위치에 맞게 빛이 켜지며 아크릴 조각들을 통해 빛이 전달된다. 작품 앞을 걸으며 마치 빛과 동행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동행 아크릴, LED조명, 카메라, 알루미늄 프레임, 전자회로, 2700x300x200mm, 2019  
go with acryl, LED lighting, camera, aluminum frame, electronic circuit, 2700x300x200mm, 2019





## ‘나무들은 왜 그들의 뿌리의 찬란함을 숨기지?’

-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에서

자연도, 사람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작품의 대상인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 깊은 곳에서 물과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다루며 내면에 대해 환기시키고

그것이 가진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보이지 않는 내면은 다가가야만 그 아름다움을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표면상으로 기술과 자연은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렇지만 기술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의해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에 의해 자연이 움직이는 유기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비와 공존과 소통을 본 작품에 담았다.

뿌리의 찬란함 **The Roots** 나무뿌리, 하프미러, 아크릴, LED조명, 적외선 센서, 전자회로, 340×340×127mm, 2017  
**The roots** roots, half mirror, acryl, LED lighting, infrared sensor, electronic circuit, 340x340x127mm, 2017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삼상 16:7)



초저녁 길을 걷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하늘에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늘고 얇은 그 달은 무척이나 불안정해보였다.  
 그러나 이내 실제 그것은 언제나 둥그렇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다만 잠시 가리워진 것 뿐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두렵고 불안하여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억해야 할 것은 가리워진 것 너머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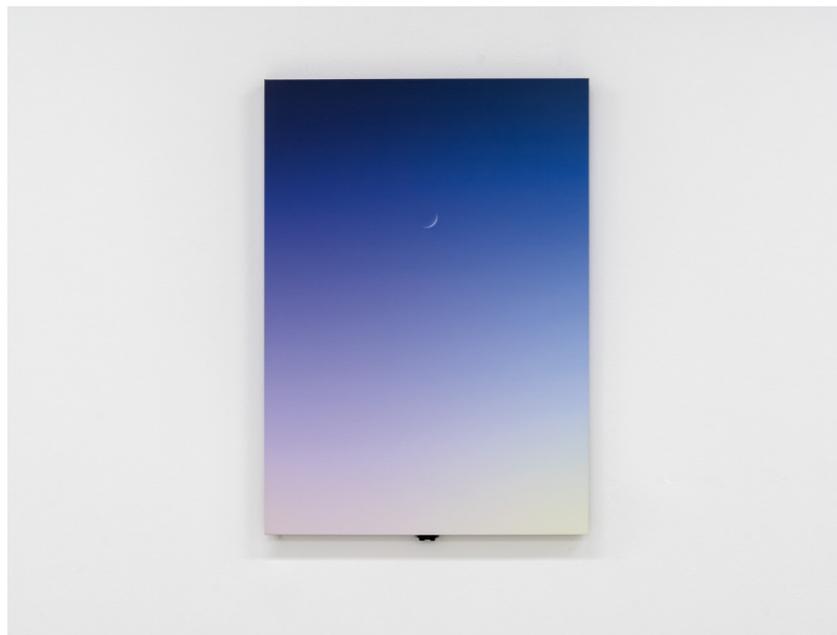
작품은 평범한 그림처럼 보인다. 작품을 마주한 당신은 얇고 희미한 초승달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가려진 하늘 뒤에서 새어나오는 보름달의 빛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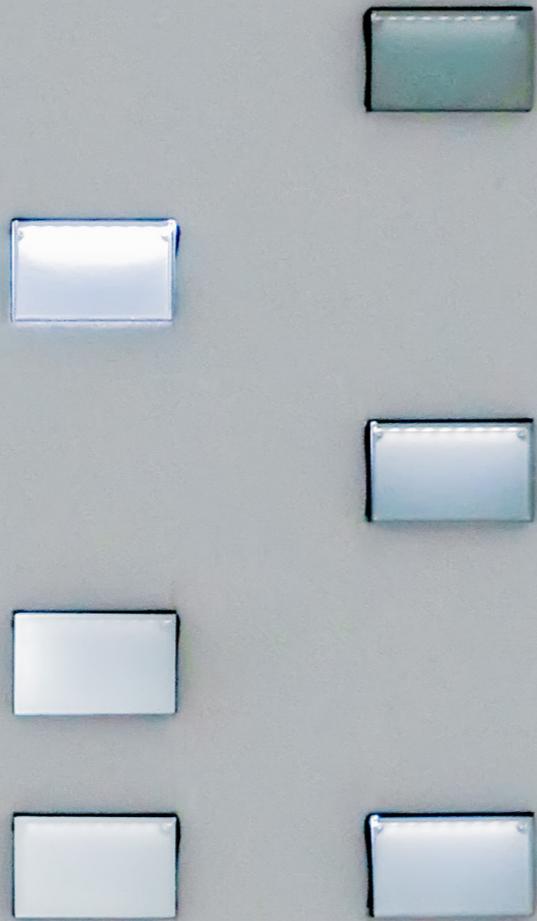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24-25)*

초승달 LED, 적외선 센서, 전자회로,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841x594mm, 2019

hope LED, infrared sensor, electronic circuit, digital print on canvas, 841x594m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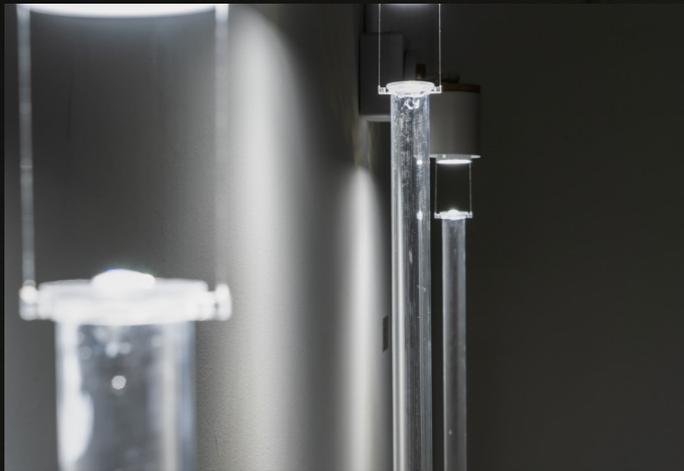


아파트 하프미러, 아크릴, LED, 전자회로, 160x100x30mm(12pieces), 2019  
 apartment half mirror, acryl, LED, electronic circuit, 160x100x30mm(12pieces), 2019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4)

도심 속 빼곡히 자리잡은 아파트에서는 똑같은 비율과 똑같은 크기의 창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빈틈없이 균일했다. 그러나 그 빛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 각자의 으로 그 안의 삶을 밝혀내고 있었다. 다가가야 들리고, 들여다봐야 보이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속에는 아픔과 슬픔, 혹은 기쁨과 화목함, 혹은 무관심과 단절 등 여러 모습이 있다. 희미하고 느릴지라도 분명 모든 이의 삶은 빛난다. 이곳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작품은 균일한 크기의 사각 창 여러개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것은 희미하게, 어떤 것은 밝게, 어떤 것은 느리게, 어떤 것은 빠르게.. 각각의 빛의 패턴으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작품의 유리 뒤편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안은 관람하는 관객 자신의 이야기가 담기게 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흔들린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걱정과 두려움에,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린다. 마음은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다.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두려움에, 아픔에, 어려움에 집중하다보면 더 큰 진동이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중심에는 빛이 있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빛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 흔들리는 빛은 흐릿하고 희미하게 엉뚱한 곳에 맞힌다. 그러나 가만히 기다리면 언젠가 그 흔들림은 잠잠해진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되찾은 중심은 집중된 빛을 반영하고 반사해낸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긴 아크릴 막대를 통해 빛이 전달된다. 그리고 바닥에 빛이 맺힌다. 막대는 바람에, 움직임에 흔들거리다 차츰 중심을 잡는다. 우리의 중심이 빛을 구하고 그 빛은 이내 중심을 반사해낸다.



## 이지혜 Lee Ji Hye

[wisdomlee91@naver.com](mailto:wisdomlee91@naver.com)

## 학력

- 2019 홍익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미술학 석사
- 2014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미술학사

## 단체전

- 2017 HCI KOREA 2017 국제학술대회 '공존의 온도' Creative Award
- 2013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전시회 'NEO'

## 논문 및 발표

- 2019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 다자간의 비언어적 실시간 인터랙티브 텔레마틱 아트 작품 연구' (홍익대학교)
- 2017 '피지컬 설치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데이터 시각화 연구 - 대한민국 9개 도를 중심으로 -' (HCI KOREA 2017 국제학술대회 '공존의 온도')

## 이력

- 2012-2013 홍익대학교 WCU Digital Media Public Art Lab, RA





아트랩대전은 젊고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예술인 경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지원하는 이응노미술관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회화, 조소, 사진, 영상, 미디어,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실험적인 작업에 열정이 있는 작가들을 지원합니다.